

장춘 상반기 지역생산총액 6% 성장... 신질생산력 한몫

● 새로운 프로젝트 룩속 가동 ● 신질생산력 재빨리 형성 ● 새로운 소비업태 한창 흥성



제1 자동차그룹 빈드렘스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동력전지 생산작업장 일각

지역생산총액 지난해 동기 대비 6.0%, 규모이상 공업생산총액 7.2%,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3.6% 증가... 이는 상반기에 장춘시가 내놓은 안정 속에서 전진하는 경제 발전 성적표다. 각 '과목'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룩속 가동되고 신질생산력이 재빨리 형성되며 새로운 소비업태가 한창 흥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질생산력 '합금량'이 충분하고 현대화 산업체계가 재빨리 구축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가 끊임없이 융솟음쳐 나오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 조업으로 산업 시설 보장

동력전지를 만재한 화물차량이 장춘시 자동차산업개발구에 자리잡은, 제1 자동차그룹 빈드렘스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8키로메터 상거한 울산로에 있는 홍기자동차공장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 동력전지는 홍기자동차에서 새로 개발한 EH7 신에너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장춘 완성차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력전지생산기지가 무려 1,300키로메터나 떨어진 산동성에 있었다.

제1 자동차그룹 빈드렘스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 공정부 가증박 부장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력전지는 저온에 견디는 성능이 랑호하며 빠른 교환과 에너지 보충을 실현할 수 있는바 장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시설 핵심 고리의 공백을 메웠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제1 자동차그룹과 비야디그룹이 합작하여 건설, 총투자가 180억원에 달하며 45기가와 트시 생산능력 계획에 따라 3기로 나눠 건설하는데 1기 공사가 올해 2월에 조업에 들어갔다. 동북지역의 첫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전지생산기지로서 앞으로 동북로공업기지 자동차산업의 전환 승격과 고품질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현재 장춘시는 년내에 증가량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 주기에 거쳐 추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디제1 자동차신에너지,

중차신에너지, 폴센스자동차전자 등 일련의 프로젝트가 속속 생산능력을 방출하여 전 시 공업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새로운 성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 구동으로 신질생산력 형성

지난 4월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는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차량용 레이저통신기지를 리용하여 '길림 1호' 위성에 탑재한 레이저 단말기와 위성-지면 레이저 고속영상 전송 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장광회사가 위성-지면 레이저 고속영상 전송 전반 사술의 공정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장광회사에서 제조한 108개의 '길림 1호' 위성이 지구 궤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아미급 상업 원격탐지위성 군체로서 바야흐로 전세계에서 중요한 우주비행 원격탐지 정보 원천으로 되고 있다.

원격탐지위성산업집군, 신에너지자동차산업집군, 광전자산업집군... 현

재 장춘은 신흥산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여러가지 산업이 지평하는 신질생산력 구도가 재빨리 형성되고 있다.

산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확장하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여 신질생산력의 집결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지지를 떠날 수 없다. 다음 단계에 장춘시는 중국과학원 장춘광기소, 길림대학 등 대학교, 연구단위와의 협력 강도를 높여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연결 효률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수준을 제고하며 위성 인터넷 연결,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미래산업의 새로운 고지를 향해 포국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소비업태 시장 활력 불러일으키다

여름밤 장춘 성투남계리문화관광마을(小镇), 찬란한 불빛과 아름다운 멜로디, 대형 스크린에 동반해 시민과 외지의 관광객들은 무대위를 잇고 시원한 속에서 동북의 한여름을 즐기고 있다. 작년 11월에 개업한 컨테이너 특색의 공원 야외 상업거리로서 성투남계리문화관광마을은 여러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다차원 놀이 체험을 제공하여 일거에 장춘 인기 관광지의 하나로 떠올랐다.

장춘시동식물공원의 서유기테마파크도 열기가 뜨겁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춘시동식물공원의 영업 수입은 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2.8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관광휴가, 문화창의, 전시장제 등 업종을 중심으로 앞으로 방특문화과학기술산업단지, 시공러점메타버스우주과학기술관 등 문화관광 대상이 룩속 장춘에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 이 빠르게 결기하면 시 소비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게 될 전망이다.

/ 신화넷



간추린 경제뉴스

7월 소비자물가지수 0.5% 상승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다. 상승폭은 6월보다 0.3% 포인트 확대됐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식품 가격은 6월 수준을 유지, 그중 돼지고기 가격은 전달보다 2.3% 포인트 확대된 20.4% 올랐다. 채소와 닭알은 전달보다 각각 3.3%, 0.8% 오름세로 전환됐다.

7월 비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7% 올랐으며 전달보다 상승폭이 0.1% 포인트 줄었다. 비식품 중 서비스 가격이 0.6% 올랐고 그중 관광과 교통·임대료 가격은 각각 3.1%, 0.8% 상승했다.

중소기업 봉사망 정식 운영

중소기업 봉사망이 일전에 정식으로 운영에 투입됐다. 공업정보화부의 조직 건설로 운영에 투입된 온라인 종합봉사 플랫폼은 정책, 기술, 봉사를 일체화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원스톱 봉사를 제공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 플랫폼은 현유의 성급 중소기업 봉사 플랫폼과 지구급(시급) 봉사 플랫폼의 연결을 마무리지는 것으로 현재 2억여 개의 입찰 대상 정보, 15만개의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전국의 기업 데이터 등 빅데이터 봉사 능력을 이미 초보적으로 실현했다.

/ 신화넷

‘세계의 슈퍼마켓’ 의오 상반기 수출 21.4% 성장



의오국제비즈니스타운을 찾은 외국 바이어

빠리올림픽 개막식 당일, 의오민 삼스포츠폰품회사에서 생산한 축구공 3만개가 1만여키로메터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같은 시의 의오국제비즈니스타운에서는 민삼스포츠폰품회사 진소미 사장이 의오를 처음 방문한 외국 바이어를 맞이했다.

"올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빠리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회사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진사장은 현재 회사의 수출 비중은 90%에 달한다며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용품을 전세계 100여개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의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의오국제비즈니스타운에는 7만 5,000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으며 진사장의 매장은 그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210만종이 넘는 상품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오의 무역액은 3,24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으며 그중 수출은 2,880.3억원으로 21.4% 확대됐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신기술 플랫폼의 지원이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의 상품무역 분야 연어 파운데이션 모델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차이나굿즈 인공지능(AI) 지체창조서비스 플랫폼들이 의오박람회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AI 기술에

재테크 시장 예금 규모 28.52조원

중국은행업 재테크시장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6월말까지 우리 나라 은행 재테크시장 예금 규모가 28.52조원에 달했다. 이는 년초에 비해 6.43%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 새로 출시된 재테크 상품은 1.54만개로 총 33.68조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의 구조로 분석하면 6월말까지 고정수익형 상품이 전체 재테크 상품 규모의 96.88%를 차지, 년초보다 0.54% 포인트 늘어났다.

상반기 서비스무역 14% 증가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우리 나라 서비스무역은 계속하여 패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서비스무역 수출입총액이 3조 5,980억 3,000만원에 달해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은 1조 4,176억 2,000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이 비교적 빨리 증가된 분야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개인문화와 오락 서비스로서 증가폭이 각각 13.8%, 13.1%였다. 여행 관련 서비스는 계속 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상반기에 9,617.1억원으로 집계돼 47.7% 증가, 서비스무역의 제1 영역으로 됐다.

/ 신화넷

절반 이상 소비자 “신에너지차 살래요”

중국 중소상업기업협회와 립신데이터연구원은 최근 <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 소비 의향 조사 데이터>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에너지차의 소비 열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 성능을 향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 결과 하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를 선택한 비중은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연료차 36.2%의 선택 비중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된다.

향후 반년내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 10.8% 중 하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39.4%, 14.2% 늘어 계속하여 확대되

는 추세를 보였으며 반면 연료차를 선택한 비율은 36.2%로 집계돼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립신데이터연구원 관계자는 "신에너지차,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소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자동차 구매 성향 결정을 주저하는 소비자 비중이 줄어들어 신에너지차의 시장 침투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격대별 차량 구매 조사에서는 '10만~20만원' 모델을 선호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인 51.0%. '10만원 이하' 모델과 '20만~30만원' 모델을 선택한 소비자는 각각 20.1%, 17.7%로 집계됐다. 소비자 10명중 9명은 자동차 구매 예산이 3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0

만~20만원 차종이 소비자들의 첫 선택지로 뿔뿔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동차의 다양한 성능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승차감, 스마트화 수준, 사회적 속성 등에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자동차기업들의 신에너지차 생산과 판매량에서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나라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492.9만대, 판매량은 494.4만대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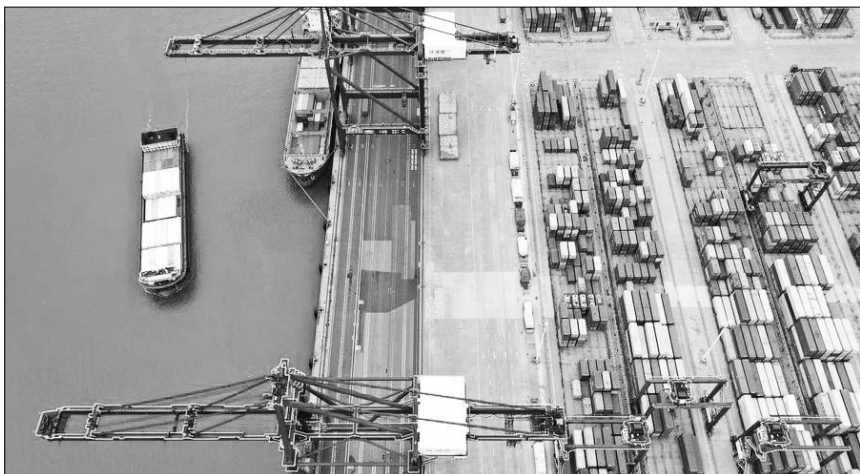
30.1%, 32% 증가했다.

6월 한달 우리 나라의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은 100.3만대와 104.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1%, 30.1% 증가했다. 6월말 기준 우리 나라 신에너지차의 루적 생산 및 판매량은 모두 3,000만대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 압력이 계속 커지면서 자동차업계 운영은 여전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하반기 중고자동차 보상교환판매,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등 정책 호재 및 자동차기업의 신차 출시에 힘입어 자동차시장의 소비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우리 나라 화물무역총액 연속 7년 세계 1위



무역은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다. 자동차, 집적회로, 리튬이온배터리 등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녹색제품의 2023년 수출은 2012년에 비해 각

각 7.3배, 1.8배, 15.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10대중 4대는 전기차, 궤도기관차 10대중 7대가 전기기관차이며 수출하는

축전지의 90% 정도가 리튬이온배터리로서 대외무역 수출의 룽색 속성이 더욱 강해졌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 수입액은 루계로 150조원을 초과해 년평균 4.2% 늘어났고 과일, 화장품, 녀성아동용품 등 소비품의 수입이 재빨리 증가되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수출입 규모는 같은 기간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21조원을 넘어섰다. 해관총서 대변인이며 통계분석사 사장인 래대량은 "전반적으로 볼 때 상반기에 우리 나라 대외무역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영주체의 활력이 충분했으며 전통 동력에너지의 우세가 견고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도 끊임없이 융솟음쳤는바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기초가 튼튼하다."고 밝혔다. / 신화넷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조직한 '고품질 발전 추진'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해관총서 관련 책임자는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은 년평균 1조 6,000억원 성장했는데 이는 중등 규모 국가의 1년 수출입 총액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화물무역총액은 연속 7년 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미 150여개 나라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되었으며 현재 대외무역기업 수량은 2012년에 비해 근 두배로 증가되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더욱 크고 구조가 더욱 우수하며 활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해관총서 부서장 조중련의 소개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의 대외

/ 신화넷